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11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충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음 깨기

가을

가을 낙엽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가을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장소 좋은 음식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 가을 소풍을 계획해 보세요
-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나눠보세요
- 목원 식구들과 한 해를 잘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세요.

경배 찬양

선한 능력으로

- (1) 그 선한함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 (2) 지나간 혀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 (3)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 (4)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갈 때 저 가슴 벽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후렴: 그 선한함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소식

1.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 갑시다.

2. 사역지원

우리교회 사역 슬로건은 '나누어지면 가볍습니다.'입니다. 2026년 사역을 위한 지원을 11월 16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사역안내서를 살펴보시고 1층 로비에 설치 된 사역지원부스 신청함에 신청서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다하여 지원하셔서 풍성한 일꾼들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기존봉사자들도 사역지원서 제출해주세요~)

교회행사

11월

1일	문답식/굿윌센터 야유회
2일	세례식
9일	성찬식/더기족세미나
16일	개강
19일	추수감사주일
29일	마하나임/트리니티 중창단 더비기닝 선교학교 수료식

12월

14일	목장모임방학/ 어와나 2학기종강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절
31일	송구영신예배

선교

[곽미정 선교사]

기니비사우

- 카파라 교회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스통을 7월에 파링에서 있는 제자 훈련 코스에 보내려고 합니다.
- 이미 크리스챤인 모하메드, 세코, 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마마두, 브바, 밀랑, 이드리시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서 후반부(7~10장)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귀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귀환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리를 통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1. 에스라에 대한 소개(1~5절)

7장의 내용은 에라라는 한 인물의 계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등장을 알리면서 본문은 ‘이 일 후에’로 시작하는데 ‘이 일’은 바로 앞 사건, 즉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유월절을 지켰던 일을 가리킵니다. 이때의 시간 간격은 약 60년 정도 생기게 되는데 이대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민들이 거의 다 죽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따라서 1세대 귀환민들의 신앙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나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라를 보낸 것일까요?

2. 2차 귀환 행렬(6~7절)

6절은 에스라의 귀환을 보도합니다. 이어서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책으로 완성된 오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서기관(학자)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시대에 “소페르”는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를 가리키는데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과 같은 위치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마히르)”로 번역된 단어는 “정통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에스라는 율법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될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적합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정통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삶을 바로 세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3. 예루살렘의 여정과 에스라의 결심(8~10절)

에스라와 그 일행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나 되는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매우 덥고 위험했습니다. (참고, 스8:21~22) 그렇지만 에스라 일행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9절)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우고자 마음을 확고히 정했습니다.(10절) 그 이유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주목하신 이유였습니다.

[나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였고, 이 은혜를 혼자서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학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와 달란트를 나누며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지 나눠보세요.

나눔

[에스라를 통해 배우는교훈 / 에스라 7장 1~10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며 말씀을 비축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

전하는 삶 말씀을 배우고 익혀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라를 보내신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